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任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尚繁

발행소: 제주대학교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학) 54-2278 · 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27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1년 9월 17일 화요일

1

2학기에 136개 과목 폐강

한국철학등 37개...수강신청자 한 명 없어 수강신청제도·교과과정 개편 시급

개강이면 으레 첫 본판앞에 붙여진 수강시간표 앞에는 수십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간표를 확인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수강신청 변경을 위해 과사무실을 들락거리는 풍경은 매해마다 계속되어온 별명의 전통(?)이 돼버린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수강신청 변경풍은 매해 30~40%를 유지하고 있고, 매해 폐강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91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폐강률 집계결과 총개강 과목 1천6백7과목중 8.5%에 해당하는 1백36과목이 폐강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2학기의 9.6% 비해 1.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학기에는 폐강과목 수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1학기 폐강과목에 비해 21개과목이나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폐강률은 개강이 되면 매일 반복되는 수강신청 변경기간과 상당한 연관이

있게 된다.

수강신청변경은 수강교과목의 전산입력이상유무, 폐강교과목 신청, 시간충복여부 등에 한해서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강신청변경은 학생들이 수강교과목에 대한 사전예비 지식과 충분한 이해없이 무턱대고 학점선호위주와 단지 이수학적 채우기에 급급한 성급하고 무책임한 교과선택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선택은 학생 스스로가 '받을 권리'에 대한 학습권의 포기일과 동시에 진지한 학습자로서의 자세까지 방학이전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강의계획서등이 없이 수강신청기간중 종합시간표를 가지고 선택해야하고, 변경기간인 일주일정도의 기간(개강직후)도 교과를 파악하고 자신의 자정에 맞추어 선택하기엔 적당치 못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과과정 교과목인 경우는 타학과 학생들이 일반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비지정교과목인 경우 전공시간표에 따라 그 중복을 피해야 하는 등 교양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등 교양과목을 도와시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한, 이를 맡은 수업과에서도 많은 수의 학생들

의 정정요구를 처리하기에는 제한된 사무직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행정상에 있어 이중삼중으로 얽히는 복잡한 처리가 문제시 될 수 밖에 없다. 아직 완전한 전산처리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폐강과목도 이에 맞춰 전년도 폐강된 과목이 또 폐강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교과목에 대한 재설각 필요성이 무책임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폐강률과 수강신청 변경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수강신청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 타대학인 경우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내에는 과목의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 한다면, △학점취득이 어려운 과목에 대한 수강취소가 허용되며 △변경기간을 개강전 1주일 개강후 1주일로 나누어 1,2차 기간동안

9월중 학사일정

△북학생등록기간=17일까지 △대학원 종합시험및 외국어시험=6일 △교과대학원 외국어시험=7일 △수업주수 1/3선=25일 △교육대학원종합시험=28일

19일 범도민 쫓기대회 개최

총학, '법 저지 투쟁에 7천학우 동참' 호소

오는 9월19일 오후 3시 탑동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제1차 범도민 쫓기대회'가 범도민회주최로 열리게 됨에 따라 교내외에서는 이에 대한 성공적 개최를



◇지난 9월13일 '정기국회특별법 제정저지 및 민자당 응징을 위한 7천이리 쫓기대회'가 열려 시내 중앙로등지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대도민 홍보전을 벌였다.

문대 '정기국회 특별법 제정저지 및 민자당 응징을 위한 7천이리 쫓기대회'를 가지는 등 다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9월13일의 쫓기대회에서

미노 일당에 대한 대격전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교내집회를 마친후 3백여명의 학우들은 "특별법 제정감행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도민생존 압살하는 특별법을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5시부터 시내 중앙로·동문로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다 7시45분경 광양주유소부근에서 1시간동안 대도민 홍보전을 벌인후 해산했다.

이날 시위과정에서 10여명의 학우들이 연행됐으나 저녁7시까지 모두 풀려났다.

단대별로도 사범대의 일간지광고투쟁을 위한 기금마련 등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제정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학과별로도 국어국문학과 2학년 학생들이 특별법 저지기금마련 딱지사를 17, 18일 양일간 벌이는 것을 비롯, 각 학과별로 대자보투쟁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불교연합회를 비롯한 동아리에서도 법제정의도 분쇄를 결의하는 대자보를 내는 등 대학내는 온통 특별법저지투쟁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주지역 총학생회협의회에서도 9월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교대에서 '특별법 제정저지 및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민중수업을 위한 새학기 제

총합 투쟁선포식"을 갖고, 전면적으로 특별법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범도민회에서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9월16일과 17일에는 우리학교 체육관에서 서문협놀이패 한라산, 인문대 노래패 불외등 교내외 14개 단체들의 연합집체극 '새날을 향하여' 공연을 가져 춤, 풍물, 노래, 미술, 영상, 마당극등을 선보이며 9월 19일의 쫓기대회를 앞두고 고법제정 반대 열기를 고조시켰다.

공원이 끝난후 범도민회는 '특별법저지의 완전한 저지를 결의하며'라는 결의문을 통해 "재법의 이익만 보장해주고 장기간을 기약하는 노태우 정권에게 정치자금을 확보해 주는 것이 특별법"이라고 전제, "제주도민은 '새날을 향하여' 공연을 계기로 범도민회의 깃발을 치켜들고 19일의 쫓기대회등에 범도민적으로 참가해 의지와 힘을 결의하여 보여줄 것"이라며 "제주도민 다중은 특별법저지를 기필코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당초 문예회관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으나 당국의 '운영규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장소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우리학교 체육관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컴퓨터 13대등 기증

제2기 최고경영자 원우회

경영대학교 제2기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회장 윤봉현)에서는 지난 8월 경영대학교에 컴퓨터 13대(1천만원 상당)와 팩시밀리 1대(1백2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기증된 컴퓨터는 현재 경영상대 실습실에 배치돼 경영상대 학우들과 경영대학원 수강생들이 컴퓨터실습에 이용되고 있으며, 팩시밀리는 경영상대 교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엔 13대의 컴퓨터가 기증됨으로 인해 현재 경영상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는 모두 45대이며 프린터는 4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 유희를 위해

농민들이여 죽어다오

지역주민들은 생존권차원에서 골프장건설에 따른 자신의 터전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우려해 골프장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할 겨를없는 삶에서 자신의 터전을 가지는 생명의 터전으로 바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비단 골프장건설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를 유린하려는 모든 법제정 움직임이나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의지라도 표출되고 있

다. 이같은 의지 표출이 선명해진 것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민의식이 확산됐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물론 언젠가는 그런일이 없었었다는 근거라도 있을까마는 지금처럼 대동한 관계에서 생존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그저 승수승기적이지 않은(?)심정으로 탄원을 할 수 있었을 뿐이다.

골프장 건설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는 없다. 그 몇 %를 위해 건설되는 골프장이 '국민전체를 위한 사회체육진흥'이라는 데는 어이 없는 주장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 지역주민 전체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골프장건설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는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전체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이다. 따라서 골프장건설반대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골프장 건설과 관련 관계당국은 건설업체에다 주민들의 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건설업체가 관계당국이 내세운 허가 조건이 골프장건설에 자주 걸림돌로 작용하자 상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법에 그런 의무조항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법의 존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귀담아 듣고 있어야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도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이다.

골프장건설허가가 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들어야 마땅한 관계당국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은커녕 언저를만 비교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건설인가'하고 물을때는 이미 지났다.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소수의 이익만 도모하는 골프장은 절대로 건설돼선 안 된다. 소수의 유희를 위해 다수의 생존권이 말살될 수는 없다.

[필]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학생회 산하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투쟁을 위한 투쟁본부'에서는 지난 9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을 '특별법투쟁기간'으로 설정해 매일 아침 교문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는 것을 비롯, 지난 9월13일 오후 3시에는5백여명의 학우들이 참석한 가

위성곤(원예 4) 총학생회장은 투쟁기간을 통해 "특별법은 지역주민을 무시한채 권력과 결탁한 재벌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빼앗고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파괴하여 도민의 삶의 양식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규정, "특별법저지를 위해 7천여명의 학우들이 참석한 가

'임금 지급 규정 명문화' 약속

소비조합 상반기 업무·회계감사시

지난 9월13일 후생과장(김명섭사무관)실에서 실시된 상반기 소비조합 회계, 업무감사 및 '91년 소비조합 2/4분기 결산보고 조사 실시결과 소비조합의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감사는 1년 2회이상 실시한다는 소비조합 정관제1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린 것으로 고성효(회계 부교수) 최창근(교직원회 회장) 등 4명의 소비조합감사자 참석하여 상반기에 있었던 △식당재료구입계약시의 업체선정기준 △나찰가격 △임금지급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이에 대해 소비조합측은 △나찰입찰은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 가격제시 업체에 나찰되고 △가격은 자체시장조사에서 얻은 최저 가격수준으로 정한다고 답변했으며, 만일 계약기간중 가격이 변동될 때에는 가격변동율이 5% 이상이면 계약기간이 1/2 경과된 경우에 한해 변동가격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조합직원 임금 지급에 대해 아직 규정이 명문화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소비조합측은 "지금까지는 모든 부분을 관례상 공무원임금 지급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앞으로 자체적인 세부규약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92년말 개설예정인 새학생회관 식당운영시 늘어나는 인건비와 수요의 한정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소비조합측은 "새학생회관 식당운영시에는 지금의 식당을 분석점으로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제11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

1. 분 야:
 - 주제논문 (70매 내외)
 -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에 관한 내용
 - 일반논문 (70매 내외)
 - 인문사회, 자연과학분야
 2. 시 상:
 - 주제논문 당선 1편 - 30만원
 - 가작 1편 - 15만원
 - 일반논문 당선 1편 - 20만원
 - 가작 1편 - 10만원
 3. 응모마감: 10월31일(목)
 4. 제출처: 본사편집국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학술상 작품'임을 명기할것)
 5. 당선작 발표: 추후공고
 6. 기 타: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 54-2278, 2279)
- 제대신문사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세로

슈바빙의 낭만, 라인강의 예술과 기적, 부란덴부르크, 통일독일의 위용 —

그러나 가슴에 가장 크게 새겨진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재원 (삼성물산 해외전략팀 근무)

'88년 1월 삼성물산에 입사, 지난 90년 1월부터 12월까지 독신과전지역 전문가제로 독일에서 생활한 현지언어, 생활습관, 문화와 제도 등을 자유롭게 익히고 돌아왔다. 독일이 통일되던 당시 들었던 베를린 장벽에서 자신이 직접 맨 장벽 한 조각을 갖고 돌아와 동료이 꺼내보며 그때의 경험과 다짐을 다시 새기곤 한다.

社說

대학문화 창달의 계기로 - 단대축전에 부쳐

지난 11일 야간강좌부의 '야학제'를 시작으로 각 단과대학마다 가을축제가 거행된다. 단과대학마다 학술·예술 및 체육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우리는 흔히 축제를 대학생활의 꿈과 낭만의 정수로 본다. 대학이란 학문을 연구하는 곳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단순히 학문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젊음을 불태우며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케하는 문화의 창조와 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축제는 단순한 놀이판이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흔히 평소의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그속에 파묻혀 있는 자기자신을 버리고 싶고 또 벗어나고 싶어한다. 일상생활에서 상징적인 세계로 뛰어들어 자신을 위장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때로는 규칙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폭음, 남비, 그래서 질서의 파괴를 가능케 하여 무질서한 혼돈을 저지르기 쉽다. 최소한 축제는 우리 교육의 전통에서 불태 제의(祭儀)로 볼 수 있다. 그 본래의 뜻은 질서와 규범에 의한 행위로 파악된다. 따라서 멋과 낭만이 아우러진 가운데 질서있는 제의(祭儀)로서 축제를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번 축제가 보다 알찬 성과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며 몇가지 제안코자 한다. 첫째, 대학축제는 대학문화의 산실로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하겠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인체를 도야하는데 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학술·체육·예술 분야의 행사가 제대인의 지적 육구의 총족과 정서적 풍요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축제를 통하여 하나의 풍토로 정착될 때 그것은 하나의 대학문화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학문화는 단순한 모방과 매너리즘 등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는 지적욕구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대학문화는 기성문화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기성문화보다 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타적 구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축제는 대학문화 산실로서의 구실을 다하게 된다. 둘째, 대학축제는 제주문화의 복원, 계승에의 기여도 모색할라 한다. 오늘날의 대학축제가 서구의 페스티발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로 많이 자리잡혀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농악, 탈춤, 굿, 가면극 등이 그것이다. 이를 창조하려는 지적욕구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제국을 다하려던 제주고유문화의 창출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축제를 통해 우리고유의 노래, 굿, 춤 등의 재현에 힘쓰는 것은 의미가 있다. 끝으로 축제는 제대인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의 장이어야 하겠다.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 모두 동참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제대인 모두가 공동의 장에서 결집될 때 장래 무한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발전될 것이기에.

無論有說 변화를 위하여

통일... 헛되이 천박하게 외치진 말자

얼마전에 TV에서 본 패튼 장군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패튼이 2차대전 후 독일의 점령사령관이 되어 소련과 독일통치에 대한 견해를 나누다가 분노하며 러시아인에 대해 "더러운 동양놈들"이라고 외친다. 이 말을 들으며 이것이 백인의, 그리고 미국적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러시아는 동양적인 냄새가 난다. 볼스토크나 또 스토프레스키의 소설을 읽으며 그랬다. 그리고 고리끼의 "어머니"를 읽으면서도 혁명에 성공한 소련의 피냄새보다 진한 토착적 흥 내음을 맡을 수 있었다. 혁명 후의 이념적 문화이 나 술체나친의 반이념적 문화보다 그 사회의 이념적 한계를 극복하려 하며 미래적 전망을 제시한 혁명적 낭만주의 문화가 더 절실한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문화가 친근한 만큼 그들의 이념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 밀접했다. 이제 소련은 공산당 해체를 선언하고 공산주의의 패배를 선언하면서 주권 공화국연합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이에 고무되어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벌써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예감하는 낙관론을 퍼고, 독일식 통일을 예견하고



해남출

있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사정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악화되고 있으니 그런 논의는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의 이득과 권자들이 자기네의 이익과 지분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손을 잡

캠퍼스의 아무 곳에서 아무 때나 연주되면 폭력의 도구가 되듯이, 우리는 그러한 헛되고 천박한 구호의 물결 속에서 살아야 한다. 자유연방은 자유를 외치지만 우리에게서는 부자유 그 자체였다. 모세의 '민주신약화' 그들이 산에 오르던 민주신약화이고 우리가 산에 오르던 비민주 신약화일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처적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통일을 내세웠던가. 혁명의 구호도 그렇다. 프랑크푸르트는 자유·평등·박애라는 인간의 심연에 잠재하는 영원한 남쪽의 만남이 가능했다고 한다. "죽음을 들고 적의 목을 찌르자"는 분파주의와 종교가 사회변혁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통일, 이 귀중한 것들은 아껴두고 헛되이, 천박하게 외치진 말자. '변화'는 잔잔하고 감동적인 노래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반쪽을 메우는 얘기를 해보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노래하자. 우리



교수동정
▲김형욱총장=지난 9월13일 서울63빌딩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의에 참석.
또 오는 9월18일 오후3시 서울학술원에서 열리는 교육부주최 국립대학 총장회의에 참석 예정.
▲양창호(미술학과)교수=지난 9월16일 경기도 발표된 한국예총 제주지부 주최 제17회 제주도미술대전에서 한 국화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
▲김삼구(해양환경공학과)전임강사=지난 9월7일 대전대역구단에서 열린 충북대학교 개교40주년 기념 '수자원·수질 종합관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심포지엄에 참석.

가정관리학과 '청담제' 16~18일 여성학강연등
▲가정관리학과 학생회(회장 양명심)3주회 '청담제'가 9월16일부터 18일까지 자연과학대 9110강의실과 9B10 강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16~17일 = 학술전시 (11:00~17:00, 9110강의실) =관리-대학생이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 경제-광고가 소비자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 주거-실기(주책설계,색채구성),이론(창), 아동-아동놀이(놀이터), 여성학-문학의 여성학,토론회-직업여성.
▲18일 = 예절강좌 (15:00~16:30, 9B10강의실).
옥바라지 기금마련 주점 17·18일 야외음악당에서
▲화학과 학생회(회장 최수진)에서는 '강경철 학우 옥바라지 기금마련을 위한 주점'을 9월17일과 18일 양일간 야외음악당에서 운영한다.
지난 7월12일 1년6개월의 실험을 받은 강경철(화공4) 학우는 이에 불복 지난 9월13일 광주고등학교에서 합소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호 동문등 입학 제1회 제주문학상서
▲김중호(88년 미교졸)동문이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지부장 김병택 국어국문학과 교수)주최, 지난 9월13일 발표된 제1회 제주문학상회복부에서 '생실의 계절'로 당선됐다.
또 변종태(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원생이 소설부문에서 '바닷고기와 민물고기'로 가작, 양명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원생이 평론부문에서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여성문제'로 각각 가작에 당선됐다.
김정희(미술학과3) 학우가 지난 9월16일 발표된 한국예총 제주지부 주최, 제17회 제주도 미술대전 서양화 부문에서 '그림자'로 대상을 차지했다.

濟大漫評



박사학위 취득
▲송상조(국어국문학과)시간강사=지난 8월30일 동아대학교대학원에서 '제주도 방언의 정미파형 연구'로 문학박사학위 취득.
영문학과 'Helicon축제' 25일부터 3일간 열려
▲제11회 Helicon축제'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회장 안수경)3주회로 오는 9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중 중앙강 및 학생회관 등지에서 열린다.
▲25~26일 = 시화전 (다에 커포스)
▲26일 = 학술제 (오후1시~3시 2중중앙강), 초청강연 'Cross-Culture Communication' (강사 P.E.Hunt교수), 논문발표 'Virginia Woolf of the Feminism에 대한 이론론적 구조' (발표자 함정임), ▲27일 = 예술제 (오후4시~7시 학생회관)연극 'Hamlet'.

공연·전시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25일 '우리네' 워크샵
▲사범대 연희연구회 우리네(회장 김미녀 국교2) '제4회 워크샵.
▲작품 =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안중환 작, 고영남 연출, 현영배·김명요 기획)
▲시작 = 9월25일 오후3시·6시 ▲장소 = 2중중앙 강당.
노래발표회 가처 13일 '소리로 크는...' 서
▲제3회 노래발표회 '어머니, 우리는 하나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가 야간강좌부 노래모임 소리로 크는 나루(회장 강근영 회계2) 주최로 지난 9월13일 오후6시 30분경 2중중앙강에서 있었다.

농협 농민학자금 대출 상환
농협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은 단기학자금의 경우 상환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장기학자금대출은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6개월마다 대출금의 균등액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차 정수는 단기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6개월마다 후취하며 장기학자금대출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6월마다 후취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거치기간의 마지막날과 이일부터 계산하여 6월마다 후취한다. 대출금의 이자가 이자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자납입일이 다음날부터 연체 이자가 붙게된다.
이 대출은 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며 다만, 장기학 자금대출로서 재취중 입영(병위소집 포함)하거나 졸업하는 해에 입영하는 학생은 거치기간 만료일 전에 연기신청을 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에는 현역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위소집통지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취재부]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三星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어떤 임무를 갖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배움의 목적으로 이 나라를 떠나 1년 동안이나 외국에 체류한다는 사실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를 때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릴 때도 그 흥분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 세계를 무대로 뛰는 비즈니스맨이 될 준비를 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예사같이 보아 넘기지않는 나를 발견하면서 삼성인의 자력으로 이 낯선 땅을 밟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피터-인스티튜트 근처의 조그만 하숙방에서 나의 독일생활은 시작되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두가 새로웠고 내 젊음은 그 모든 새로움을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독일의 하늘은 희색이다. 그 희색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사색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독일인은 그 우울을 사색으로 발전시켰다. 피터가 그렇고 릴케가 그렇고 레마르크가 그렇다. 독일어로 그들의 시와 소설을 다시 읽었다. 어느새 나는 독일인이 된 기분으로 그들의 생활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몸이 배인 근면성이 있다.

과실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독일은 소박하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보수적이지만 또한 과감하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않는 것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냥 지나쳐가는 관광객들의 눈에는 보일없는 무형의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독일자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독일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더구나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배움의 목적으로 독일에 와 있는 나를 그들은 반쯤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몰라 켈때면 시절 너무도 친절할 도움을 준 한 상원의원, 로렌트크 가도를 안내하던 마를렌느, 나를 독일인으로 착각하게 해준 하숙집 아줌마, 그들은 나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작은 독일들이었다. 지금은 한국에서 독일에 주재원으로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독일행이 될 것이다. 벌써 마음은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듯 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나를 그려본다. 당당한 비즈니스맨으로 독일땅을 밟고 있을 나를 -

삼성은 매년 입학 3년차의 신입사원 400명씩을 선발하여 지역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1년간 세계 45개국에 독신파견하고 있으며 3년후인 94년에는 약 2,000여명의 지역전문가가 양성됩니다.
91년부터 입학 3년차의 신입사원중 10%를 선발하여 세계 45개국에 1년간 파견하여 지역전문가를 양성해가는 독신파견 지역전문가 양성제도는 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경험과 지식만을 쌓아 자연스럽게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제도입니다.
현지언어습득, 商 諳습과 문화체득, 여행 및 현지인과의 사교 등의 큰 줄기외에는 일체의 요구사항이 없으며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의사와 계획에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제품의 국제화를 선도할 인재를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 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결국 사람의 국제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제도에 젊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전있으시길 바랍니다.

三星 (Samsung) advertisement with logo and text about international training.

□ 공연평-집체극 '새날을 향하여'

특별법저지투쟁 목적 잘 표현



○16·17일 우리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새날을 향하여' 집체극 마지막 장면.

제주도개발 특별법 저지를 위한 집체극 '새날을 향하여'의 공연여부를 놓고 문예회 관측과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정 반대 범도민회가 한동안 서로 맞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우리학교 체육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을 보기 위해 체육관 입구에서 본관건물까지 약 25m 길이의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로 우리학교 집체극에 거는 기대는 컸다. 노래패들의 노래로 시작된 집체극은 종종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강렬한 춤·풍물·영상을 통해 교육관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물고갔다. 도내 14개 문예단체 회원 1백여명이 공연과 기획에 참가한 이 집체극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서막인 1장에 이

법반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표현했다. 모든 공연은 얼마나 잘 조화됐는가 중요하다. 즉 공연안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노력과 땀방울, 공연자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집체극은 집단이 함께하여 단결의식을 고취하고 전개구·전계층의 결집된 사상을 담아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연은 극작가로서는 구성상 각 장마다의 연결성이 약간 부족했고 짧은 시간동안의 약조건 속에서의 연속된 몇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극을 준비하면서 그 구성원이 특별법 저지 의지를 다지고 극을 보는 관객에게 그 의지가 확고하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이번 집체극의 연출을 맡은 제민협의 정공철씨는 "이제까지의 지역적·부분적이었던 투쟁을 반성하고 단결된 연대투쟁만이 특별법 저지의 길임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고 이번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집체극은 극작가의 세련성에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크고 강렬한' 동작으로 현시기를 특별법 투쟁의 시급성을 전달하고 관객들에게 특별법 저지의 의지를 고취시킨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김미진 기자]

도서관 자리독점 이기심에서 비롯 당국도 대책세워야

공공건물은 공중을 위하여 존재하며 최대한의 편리와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대학에 있는 건물들은 제대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 또한 서로 존중하며 애착을 가지고 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몇명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 우리 학교에서는 도서관 자리를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끝내 내가 공부할 열심히 하겠다는 네가 뭐냐는 식의 허울좋은 이기심인 것이다. 소위 지성인이라 불리우는 우리자신조차도 조그마한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식의 논리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자기만의 것이 아닌

독자의 소리 (Reader's Voice) column header and introductory text.

이상 누구나 자유로이 그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도 한 지성인의 모습에서 가장 보기 싫은 모습일 것이다. 지금은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식의 논리가 할 때가 아닐까 싶다. 학교당국은 이런 문제가 종종 있어왔으면서도 그리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다. 도서관 1층 공간을 이 용해 좌석을 만들기는 했지만 실상 그곳은 각종 잡음으로 집중하기가 어렵다.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아닐까? (김미령 사회학과)

야권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들에 경각심을 늦추서는 안된다. '시대의 흐름에...'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며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바로 타의에 의한 삶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삶을 깨달아야 한다. (현성수 농화학과)

단체축전에 학우들 무관심 공동참여 방안 마련해야

요즘들어 각단체별 축제 준비로 학과마다 부산을 떨고있으며 단체학생회에서 그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체 학생들의 참여를 생각할 때, 또 그에서 살아 가야 할 앞으로 4년간의 나의 대학생활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자 한다. 과연 단체축제는 누구를 위하여 열리는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단체생 전체에게 물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단체축제는 하는 것은 단체생활을 위한 단대생에 의한 그야말로 단대생의 축제이어서 한다고 느껴왔고 또 그렇게 들어왔다. 그럼, 과연 단체축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단대생 전체가 과연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참여의 의지도는 갖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아니오'이다. 눈이 있으면 보았을 것이고, 귀가 있으면 들었을 것이고,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단대생의 절반 이상은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저지시켜 50만 도민의 본폐를 보여주자

지난 9월 10일부터 1백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7천 여인구와 50만 도민의 관심은 민자당의 특별법 통과 여부를 어떻게 저지하는가에 있다. 제주도에서는 거리상 덮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마저 특별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는 형편이라 범도민회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저지는 보다 많은 도민의 의지를 모아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자당 국회의원은 제외하고라도 야당계 국회의원들 '특별법'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남녘땅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만 도민 제외)은 제주도를 '관광지'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두 야당의 통합은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반드시 통합으로 인해 지금까지 야권에조차 불신했던 면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운영방식과 공약등의 사항이 실천의 대안에 들어설 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통합이라는 것이 학우들에게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가장 민주당은 냉철한 심판에 몰라야 할 것이고, 귀가 있으면 들었을 것이고,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단대생의 절반 이상은

권하고 싶은 책 아침꽃을 저녁에 줘다

과거의 일로 오늘과 미래 설명

서점가의 산문집은 흔히 身邊雜記의 모음이라는 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힘들뿐더러 일반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신변잡기라는 게 누구에게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다만 감동의 폭이 서로 다를뿐. 그러한 연유로해서 이쪽 연면의 노신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줘다' (도서출판 웅진)를 선택 추천하기에는 망설임이 없지 않다. 사족을 붙인다면 고운 글들, 감성적인 글들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 산문집들과는 달리 작가의 메시지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잔잔한 감동이 있다. 노신, 그는 내 기억 언저리에 늘 새롭게 남아있는 작가이다. 고교시절에 읽은 중국 현대문학사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阿Q正傳'이 그렇고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중국 문화혁명의 立將' 등 그에게 붙일 수 있는 별명이 있어서 그렇다. 1818년 浙江省 소흥에서 태어난 노신은 처음에 의학을 공부했으나 차후 가장 사급한 것이 중국인의 정신을 개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문학이라는 수단이 적절하다고 판단, 문학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8년 38세의 나이에 처음 발표한 소설 '광인일기' 이후 그의 소설활동은 높고 비평가들은 '암흑적 현실과의 싸움'으로 요약한다. 그러나 노신의 면모는 소설세계에서 보다는 산문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그의 산문은 '雜文'이라 불리우는 독특한 형식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집문이라는 게 문예성과 시사성이 만나는 점에 위치한 사회비평적

통합야당, 현실 안주 경계해야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있다

적용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부여받는 자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가를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특히 나라를 꾸리는 사람들에겐 적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면 정치인들은 이미 퇴짜하고 정치적 사리사욕에 빠진 이들과 대등한 단언할진정 아무 반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도외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정치권력에 대한 신용은 이른적 진행방식과 기타 나타나는 정치가의 활동력과 행동반경에 인간으로서의 지할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정치에는 후사가 없어져야 한다. 멀리서 보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밀실회당이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고 중요시 여기며 공식회담은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선전되는 흔해빠진 폐고물로 밖에 여기고 있지 않는 듯 하다. 그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느님, 잠깐만

조카 녀석이 침팬지 人形을 가지고 놀고 있다. 태엽을 감으면 音樂이 없어도 우물우물 춤을 추고 방안 가득 들어서는 울창한 密林. 침팬지는 하이얀 넝쿨꽃 그네를 타고. 녀석은 신이 나서 박수를 친다. 태엽이 다 풀렸는지 스스로 주저앉는 침팬지. 문득 密林이 사라지고, 저만큼 벽에 부딪혀 파르르 떠는 손..... 하느님, 잠깐만! 나도 잘 주저앉는 놈이지만 다시 일어설때니 제발 던지지 마세요. 아니, 정신차리도록 세차게 던져 주세요. ※김해원(본명 김중철·국교3)은 이작품들 11편의 시로 '문학과 비평' 91년 가을호를 통해 등단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Infographic titled '도민 '위한' 특별법' (Special Law Threatening Citizens). It features a central illustration of a family and a child, surrounded by text boxes explaining the impact of the law on citizens' lives, such as '우리 이모는 다음공공포장 캐다...' and '아빠지도 인위적인 병장관인 였...'.

씨 감자를 심자

70년대나 90년대나 달라진 게 하나 없다. 우리마을에는 울래 통우물에 살던 미꾸라지·물방개·울쟁이·붕어새끼들이 먼곳으로 이사 가 버렸다는 사실 제외하고는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 없다. 우리마을에는 주인바뀐 초가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선고 때 때고 변변하는 세단차들 수시로 드나드는 것 빼놓으면 우리마을은 달라진 게 하나 없는데 아바와 어머와 누이만 달라져 간다. 우리마을 생활이 몇년전까지만 해도 기름 뿜아 밥 부벼먹고 내다 팔기 위해 유채 심더니 작년부터는 신선부부 관광객 어루꼬이기 위해 유채꽃을 가꾸기 시작했다. 유채밭에서 뛰놀고 덩구는 고놈들 위해 고놈들에게 유채밭 입장료 팁 받는 재미로 우리마을은 올해도 유채를 심는다 유채가 영글든 말든 틈만 두둑히 건네다오. 금방이 같이 흙파먹고 살아온 우리 아버지 고구마·감자 환관 팔아 88담배 한갑 못사 피워도 그래도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다 땅땅 큰소리 치던 어르신네 마저 도시농부팔이로 나서겠다 엄포놓는다. 정년퇴임나이를 잊으셨는지 옆동네 복돌이 아방처럼 요리저리 즐놀이 중문골프장 관리인 되겠다고 난리를 떠다. 의료 보험가입비도 안 나오는 농사일에는 신물난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사람이 사는 것이냐 특급호텔 종사원 누이 마저도 지아비 지어미 가슴에 못질할 하네 돈냄새 맡다보니 제 분수도 까맣게 잊고 어찌하여 우리마을은 달라진 게 하나 없는데 우리집은 울래 통우물처럼 썩어만 간다. 우리마을은 달라진게 하나 없는데 중상간 여기저기 신작로 고속도로로 광풍풀리고 고길따라 요리저리 오가는 연놈들은 늘어만간다 골프채 메고 시너 끼고 저놈들 상관대기 보기 싫다 너무 쉽게 말은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무슨짓을 하고 있는가 분노만 키운다고 일이 되는가 자 가자 평평 풀린 신작로 오솔길 따라 곡괭이 에고 호미들고 오름으로 오름으로 오름으로 가서 가시덤불 잘라내고 화전 일구자 그리고 나서 양지 바른 쪽에는 가을감자를 심자 골프공만한 씨감자들